

한동대학교 제6대 대학평의위원회 2017학년도 1학기 제3차 정기회의

(제1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7명

회의 일시 : 2017. 7. 20(월) 10:00 ~ 11:45

회의 장소 : 현동홀 소회의실 회의실

성원

1. 참석자 (7명)

배건웅 의장, 강사웅 의원, 한윤식 의원, 장규열 의원, 최규학 의원, 주병창 의원, 김기찬 의원

2. 불참자 (4명)

황혜리 의원, 권상석 의원, 최유강 의원, 유승대 평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 이강 교수, 이처경 교수, 이종식 교무지원팀장, 이평수 대학원교학팀장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의결 및 토의

○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 수학통계전공 신설과 관련된 설명을 위해 이처경 교수가 참석하여 수학통계전공 신설의 취지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 약 1시간 20분 동안의 논의 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제안하였다. 수학통계전공 신설 이외의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 안건은 상정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수학통계전공신설관련 의결 내용

- 수학통계전공 운영 시점을 1학기 늦추는 것으로 의결하고 3개월 이내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① 학교의 예산 투입 필요 규모에 대한 검토 - 교과목추가 개발 및 교원충원 계획 등
 - ② 수학통계전공의 장기 운영계획(발전계획)
 - ③ 위 ①과 ②에 대한 교무처 등 관련부처의 의견
 - ④ 교육과정이 인문계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문계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완(전공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다는 의견 있었음)

수학통계전공신설관련 제안 사항

- ① 학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할 것을 제안함
- ② 학부장회의, 기획위원회, 교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향후에는 관련 회의 내용도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함

- ③ 기존 교과목을 조합하여 만든 전공(제안시점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의 경우 추후 학생이 증가하면 학과신설요청, 예산배정 요청 등이 뒤따르므로 이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 ④ 부전공으로 제공될 경우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 필요함
- ⑤ 이미 학생설계융합전공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수학통계전공을 테스트 운영해 보고 이 전공의 필요성과 수요를 확인하면서도 더 건실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추진 배경

- 총장께서 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한 학생의 보수가 높다는 자료를 어디에선가 열람하시고 우리 대학에서 응용수학 위주로 2전공으로 제공하여 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공신설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수학통계전공은 순수학문으로서의 전공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성보다 정량적인 측면의 수학 분석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 학생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처음에는 호응도가 낮았으나 나중에는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호응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설을 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우려사항

- 전공운영의 부실 우려
 - 기존의 교과목을 활용하고 현 교원으로 운영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지금까지 전공이 신설되어 온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온전한 전공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을 생각하고 학생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운영이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설 이후에 학생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커리큘럼의 완성도
 - 현 시점에서 볼 때 커리큘럼의 구성이 약하고 전공으로서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 수학통계전공을 온전한 전공으로 만들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목 중 수학전공으로 적용 가능한 과목을 조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계제어 전공을 하는 학생이 본인의 전공에 추가하여 수학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본인이 들은 과목 중 수학통계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있을 때 몇 과목만 더 들으면 수학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 그런데 본인이 기계나 특정 수학과 연관성이 있는 전공에 Attachment가 없는 상태에서 수학통계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된 커리큘럼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
 - 학교에서 신규 교원충원이 없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학교 전공신설의 구조적인 문제점
 - 항상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 없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진된다.
 - 이로 인해 전공신설을 하는 현 시점에서는 신설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년 후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충원 등 실질적인 문제에서 불만과 불신이 생기게 된다.
 - 1전공이든 2전공이든 상관이 없이 전공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전공이 신설되면 학생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 전공의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취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만들자는 주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과거 GEA 전공이 2전공으로만 하고 교수 배정이 없다는 전제였으나 후에 학과체제로 변경되었다.

- 문과학생들에 대한 고려 부족
 - 취업을 고려한다는 측면을 포함해서 문과학생이 수학/통계를 제2전공으로 할 때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커리큘럼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이고 인문계 학생에게는 커리큘럼이 너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문과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장기 계획이라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 문과학생에 대한 수학통계의 수요 조사 및 설명회를 통한 정보 공유 부재가 우려된다.
 - 수요 조사 등 없이 전공신설이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

▷ 기타 토의 내용

- 수학통계전공신설에 대하여 오늘 설명 자리에 오시는 교수님이 없어 이처경 교수님이 오신 것을 볼 때 관련 전공교수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방학으로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 이처경 교수가 의원들의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 있는 과목이 충분히 학생들이 사고방식을 전환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처경 교수가 인문사회 학생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상정자료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과목이 GLS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이 전공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검토한 것이고 타 대학의 교과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성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이평수 대학원 교학팀장이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였다. 의원들이 동의하여 상정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의장	배건웅	부의장	한윤식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장교철	평의원	강사웅	평의원	최규학
					<불참>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김기찬	평의원	최유강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유승대		
					<불참>		<불참>		<불참>		